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부모 통제의 매개적 역할*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s Depression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Control*

조아람(A-Ram Cho)¹⁾

최미경(Mi-Kyung Choi)²⁾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conflict,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de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243 elementary school 5th and 6th graders (of which 121 were boys and 122 were girls) from Gyeonggi-do province.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arital conflict,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depr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marital conflict (content) had an effect on children's depress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was also found to have an effect on children's depression. However, parental behavioral control did not appear to have an effect on children's depression. In addition marital conflict (frequency/content) had an effect 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dditionally, marital conflict (resolution) had an effect on parental behavioral control. It was further found that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 본 논문은 2013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아동상담전공 석사

²⁾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Choi,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33, Samyangro 144-gil, Dobong-gu, Seoul 132-714, Korea
E-mail : dmkchoi@duksung.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depression.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Keywords :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paternal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부와 모의 행동적 통제(paternal and maternal behavioral control), 아동의 우울(children's depression).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의 왕따, 학교 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동 행동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우울, 불안, 스트레스, 공격성 등의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a, 2004; Kim, 2004; Noh, 2008). 특히 아동의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우울 장애가 발병하면 만성화되거나, 치료 이후에 재발되어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Kim & Cho, 2008). 또한 우울은 감정적으로 우울함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 자살, 불안, 공격적인 행동 등의 심각한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예방과 치료에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에 청소년이 한 사립 초등학교에 난입해 둔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학생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피의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병세가 악화돼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밝혀졌다(Kim, 2012). 또한, 10대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에 대한 보고에서도 12~14세 9.8%, 15~18세 14.8%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10대 초반의 학령후기 아동 및 상당수의 청소년이 우울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우울 장애는 문제행동, 대인 관계 문제, 약물 문제, 사회적 부적응 등을 동반하며(Cytryn & McKnew, 1972), 아동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낳고 이차적인 심리,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였다(Kim, 2008). 하지만 아동의 우울은 전형적인 우울 증상 외에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를 Cytryn과 McKnew(1972)는 가려진 우울(masked depression)로 분류해 보고 하였다. 즉, 아동은 성인과 달리 우울 증상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질시켜서 나타내기 때문에 아동의 우울을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Jung, 2004). 실제로, 20여 년 전부터 아동기에도 우울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해 왔으나, 이는 임상적인 우울 장애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울 장애로 진행되기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울 증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 예방적 대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우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자는 관련 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중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해왔고, 특히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증을 촉발시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밝혀졌다(Reid & Crisafulli, 1990). 즉,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부부갈등

을 겪는 것은 부모뿐 아니라 가족 관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를 파괴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다(Kim & Lee, 2002).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주의력 결핍,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면적 부적응이나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위축 등의 내면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었다(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부부간의 갈등을 자주 경험한 아동에게서 우울이 높게 나타난 연구(Cho, 2010)에 근거해 볼 때, 부부갈등은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은 아동이 지각하는 갈등의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빈도, 부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는 강도와 부부 갈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나타내는 해결, 부부 갈등의 내용이 자녀와 관련된 것인가를 나타내는 부부갈등의 내용 등의 다차원적인 특성이 있으며 각 차원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깊다(Kwon & Le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이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부 간 갈등 특성이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또 다른 환경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다. 학령후기는 활동 영역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장되며 독립하려는 욕구가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로 부모의 통제는 중요한 양육 행동이다. Barber(1996)와 Schaefer(1965)는 통제가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표현 억압, 죄의식 유발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심리적 통제와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의미의 행동 통제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적응이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 등 정서적 문제와 약물남용이나 일탈행동 등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Baber & Harmon, 2002; Stolz, Baber, & Olsen, 2005). 반면, 행동적 통제와 문제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행동적 통제는 심리적 통제보다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보였다.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여자 중학생의 우울이 낮아졌고(Park, 2009), Lee(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만을 살펴본 연구들(Jeon, 2007; Kim, 2008)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을 부모의 성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통제와 어머니의 통제 중 누가 더 큰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였다(Lee, 2010; Park & Le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부모의 성에 따라 구별하고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이밖에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아동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적대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하였으며(Kim, 2007), 부부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켜 적절한 양육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Lee, 2007). 즉, 부부갈등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긴장이 부모-자녀 간의 관계로 종속되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저

해하게 된다(Davies & Cummings, 1994; Kim, 2004).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부모의 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 태도만을 본 연구들(Jeong, 2004; Kim, 2010; Park, 2011)이 주를 이루어 왔다.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부모의 심리적, 행동적 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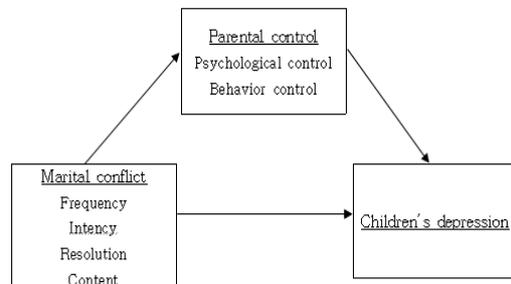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 및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우울 간에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은 부부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할수록 아동의 주관적 우울감과 행동문제가 심하게 나타났다(Lee, 2003; Lim & Yoon, 2010). 또한,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우울을 증가시켰고(Jeon, 2007),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반대로 우울을 감소시켰다(So, 2008). 부부갈등은 부모의 통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증가했으며(Gang & Jang, 1999), 행동적 통제는 감소했다(Cho, 2010). 부부갈등 및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우울 간의 상호 관련성에 기초해 볼 때,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선행 변인일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드물지만, 부모의 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인 양육행동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면화 문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한 연구들(Noh, 2008)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즉,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

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Jeon, 2007; Noh, 2008).

종합해 보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모의 부정적인 통제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부정적인 통제방식은 결국 아동의 우울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통제가 매개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통제가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매개적 역할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부부갈등은 부모의 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부모의 통제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Figure 1> The mediating role model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H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243명(남아: 121명, 여아: 122명)의 남녀 아동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학령후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Erickson, 1968),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태로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로 인해 부모의 양육 행동에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Lee, 2010).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121명(49.8%), 여아가 122명(50.2%)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은 12세가 157명(64.6%), 13세가 67명(27.6%), 11세가 15명(6.2%), 14세가 1명(0.4%) 등이었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41~45세가 107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연령은 41~45세가 109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88명(36.2%)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86명(35.4%)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부부갈등을 비롯하여, 부모의 통제 그리고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는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고, 모든 척도는 아동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243)

Variables	N(%)	Variables	N(%)
Child's gender		Child's age	
Boys	121(49.8)	11 years	15(6.2)
Girls	122(50.2)	12 years	157(64.6)
		13 years	67(27.6)
		14 years	1(0.4)
		Missing	3(1.2)
Father's age		Mother's age	
Under 35 years	5(2.1)	Under 35 years	11(4.5)
36~40 years	36(14.8)	36~40 years	85(35.0)
41~45 years	107(44.0)	41~45 years	109(44.9)
46~50 years	72(29.6)	46~50 years	28(11.5)
51~55 years	17(7.0)	51~55 years	4(1.6)
Over 56 years	1(0.4)	Over 56 years	0(0)
Missing	5(2.1)	Missing	6(2.5)
Father's educational level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6(2.5)	Middle school	3(1.2)
High school	75(30.9)	High school	86(35.4)
College	15(6.2)	College	15(6.2)
University	88(36.2)	University	86(35.4)
Graduate school	9(3.7)	Graduate school	4(1.6)
Missing	50(20.6)	Missing	49(20.2)

또한, 부부갈등, 부모의 통제 그리고 아동의 우울 척도를 아동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3인이 확인하였고, 해당 학년 10명에게 먼저 실시하여 문항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은 갈등의 빈도(frequency)(6문항), 강도(intensity)(7문항), 해결(resolution)(6문항), 그리고 내용(content)(4문항)의 요인으로 총 23 문항으로 구성된 Kim(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Grych, Seid와 Fincham(1992)의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가운데,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및 내용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깊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Kwon & Lee, 1999)에 근거하였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빈도는 부부갈등의 노출 정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고 강도는 부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며, 해결 및 내용은 부부갈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와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된 것인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다(Kwon & Lee, 1999).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부부갈등 빈도요인은 부부갈등 빈도의 경우,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등이, 부부갈등의 강도는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신다’,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하신다’ 등이 있다. 부부갈등의 해결에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내신다’ 등의 문항들이, 부부갈등의 내용에는 ‘우리 부모님은 나

의 학교일 때문에 자주 다투시게 된다’, ‘우리 부모님은 보통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투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긍정적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강도가 세며,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및 내용은 각각 .79, .81, .77, .82였다.

2) 부모의 통제 척도

부모의 통제는 Cho(2010)의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통제와 어머니의 통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Cho(2010)는 심리적 통제 척도로 Schaefer(1965)의 CRPBI(the 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에 기초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PCS-YSR(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과 행동적 통제의 척도로 Barber, Stolz와 Olsen(2005)이 사용한 것을 역번역 하였다. 8 문항으로 구성된 심리적 통제 요인에 속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 하신다’, ‘내가 아버지(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등이 있다. 행동적 통제 요인(5문항)으로는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밤에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 친구가 누구 인지 알고 계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

미한다. 내적합치도에 의한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각각 .80과 .86이었으며, 부와 모의 행동적 통제는 각각 .78, .86이었다.

3) 아동의 우울 척도

아동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1971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개발한 도구인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CES-D)를 변안한 Jeong(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원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지만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Garrison et al., 1991). 지난 일주일 간의 정서 상태를 묻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을 가지고도 귀찮게 느껴졌다', '입맛이 없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었다(1점)', '한두 번 있었다(2점)', '많이 있었다(3점)', '매일 있었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우울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92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 조사는 2012년 12월 1일~20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H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각 학급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각 담임교사들의 지시 하에 학생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310부의 질문지 중 277부가 회수되었으며(약 89%의 회수율), 이

중 무성의하게 답변한 질문지와 부모가 계시지 않거나 한쪽 부, 모만 계시는 아동의 질문지 34부를 제외한 24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9 program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둘째, 조사도구의 문항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부부갈등 및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변인들 중에서 어떤 하위요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통제가 부부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 이하(1.34~2.70)와 0.1 이상(0.37~0.74)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85).

Ⅲ. 결과분석

1. 기초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부갈등, 부모

의 통제 및 아동의 우울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고자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그 결과, 부부갈등의 하

위요인 중 부부갈등의 빈도가 평균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평균 1.8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평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243)

Variables	M	SD
<u>Marital conflict</u>		
Frequency	1.91	.58
Intency	1.85	.58
Resolution	1.86	.54
Content	1.56	.58
<u>Parental control</u>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1.84	.56
Paternal behavioral control	2.63	.75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1.92	.66
Maternal behavioral control	3.20	.75
Children's depression	1.84	.54

<Table 3>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243)

Variable	1	2	3	4	5	6	7	8	9
1. Marital conflict (Frequency)	-								
2. Marital conflict (Intency)	.72***	-							
3. Marital conflict (Resolution)	.65***	.65***	-						
4. Marital conflict (Content)	.50***	.39***	.38***	-					
5.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44***	.43***	.41***	.41***	-				
6. Paternal behavioral control	-.12	-.16*	-.23***	-.05	-.17*	-			
7.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48***	.43***	.40***	.47***	.65***	-.19**	-		
8. Maternal behavioral control	-.10	-.10	-.22**	-.08	-.25***	.57***	-.03	-	
9. Children's depression	.42***	.39***	.34***	.38***	.45***	-.24***	.42***	-.18**	-

* $p < .05$. ** $p < .01$. *** $p < .001$.

균 1.92,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가 평균 2.63,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평균 3.20 이었고, 아동의 우울은 평균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3과 같이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강도가 세며, 해결이 어렵고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과 관련된 것일수록 부모 모두 심리적 통제가 높았다. 반면, 부부갈등의 강도가 세고 해결이 어려울수록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는 낮았다. 또한, 부모가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할수록 아동의 우울은 높은 반면, 부모가 행동적 통제를 할수록 아동의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강도가 세며,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이 있을수록 아동의 우울은 높아졌다.

2.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갈등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

인으로, 아동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beta = .22, p < .01$)만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과 관련된 학교 일, 아동이 한 일 등 아동 자신과 관련된 것일수록 아동의 우울은 높았다.

3.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통제의 네 가지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부와 모의 통제의 네 가지 요인들 가운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 = .28, p < .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beta = .22, p < .01$)만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6%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할수록 아동의 우울은 높았고,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rital conflict as predictors of children's depression (N = 243)

Independent variable	Children's depression
<u>Marital conflict</u>	
Frequency	.16
Intency	.16
Resolution	.05
Content	.22**
R ²	.23
F	16.94***
(df)	(4, 226)

** $p < .01$. *** $p < .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rental control as predictors of children's depression (N = 243)

Independent variable	Children's depression
<u>Parental control</u>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8**
Paternal behavioral control	-.13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2**
Maternal behavioral control	-.03
R ²	.26
F	19.04***
(df)	(4, 220)

p < .01. *p < .001.

4.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갈등의 각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아버지의 통제와 어머니의 통제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beta = .24, p < .001$)만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8%였다. 즉,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에 관련된 것일수록 아버지의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rital conflict as predictors of parental control (N = 243)

Independent variable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Paternal behavioral control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Maternal behavioral control
<u>Marital conflict</u>				
Frequency	.10	.08	.20*	.06
Intency	.17	-.07	.11	.06
Resolution	.15	-.25**	.09	-.28**
Content	.24***	.04	.29***	-.03
R ²	.28	.06	.32	.05
F	21.40***	3.49**	25.75***	3.09*
(df)	(4,226)	(4, 226)	(4, 224)	(4, 224)

*p < .05. **p < .01. ***p < .001.

심리적 통제가 높았다.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해결($\beta = -.25, p < .01$)만이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6%였다. 즉, 부부갈등의 해결이 어려울수록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는 낮았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beta = .29, p < .001$), 부부갈등의 빈도($\beta = .20, p < .05$) 순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32%였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부갈등의 내용이었으며,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갈등의 내용이 자녀에 관련된 것일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해결($\beta = -.28, p < .01$)만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5%였다. 즉, 부부갈등의 해결이 어려울수록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낮았다.

5.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 통제의 매개적 역할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 통제의 매개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세 가지 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 통제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이 매개변인인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을 통

해서는 독립변인인 부부갈등과 매개변인인 부모의 통제를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후,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Baron과 Kenny에 의하면 매개변인이 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 기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총 두 가지였다. 즉, 부부갈등,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였다.

1)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매개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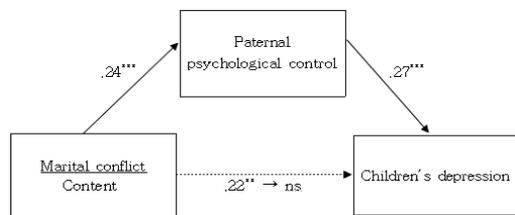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부갈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을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4,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2, p < .01$).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Table 7과 같이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22, p < .01 \rightarrow ns$).

즉, Figure 2에 의하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부부갈등의 내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여,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과 관련된 학교 일, 아동이 한 일 등 아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diating role of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N = 243)

Independent variable	Step1	Step2	Step3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depression	Children's depression
<u>Marital conflict</u>			
Frequency	.10	.16	.12
Intency	.17	.16	.12
Resolution	.15	.05	.03
Content	.24***	.22**	.15
<u>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u>			.27***
R ²	.28	.23	.29
F(df)	21.40***(4, 226)	16.94***(4, 226)	17.77***(5, 223)

p < .01. *p < .001.



p < .01. *p < .001.

<Figure 2> The mediating role of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동자녀와 관련된 것일수록 아버지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그로 인해 아동의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매개적 역할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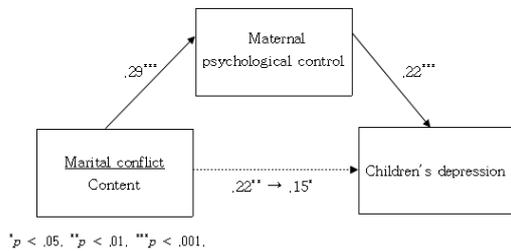
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부갈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을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부부갈등의 내용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9,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2, p < .01$).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Table 8과 같이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다($\beta = .22, p < .01 \rightarrow \beta = .15, p < .05$).

즉, Figure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부부갈등의 내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여,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Table 8>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diating role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N = 243)

Independent variable	Step1	Step2	Step3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depression	Children's depression
<u>Marital conflict</u>			
Frequency	.20*	.16	.13
Intency	.11	.16	.12
Resolution	.09	.05	.04
Content	.29***	.22**	.15*
<u>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u>			.22**
R ²	.32	.23	.27
F(df)	25.75*** (4, 224)	16.94*** (4, 226)	16.08*** (5, 221)

*p < .05. **p < .01. ***p < .001.



*p < .05. **p < .01. ***p < .001.

<Figure 3>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부부갈등 및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통제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된 것일수록 아동은 우울을 더 많이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 자신에 관한 내용일수록 자녀는 우울이 높고,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냈다는 연구(Kum, 2010)와 일치하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을 비롯한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Davies & Cummings, 1994; Kim, 2004)과 유사하다. 즉, 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에 관한 것일 때 아동에게 부적응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Synder et al., 1988). 하지만,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 위축, 사회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Noh, 2008)와 부모의 갈등 형태가 심할수록 아동의 주관적인 우울감, 행동

문제, 부적응이 높다는 연구결과(Kim & Lee, 2002; Park, 1996)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부부 간 갈등이 발생한 후 해결이 안 된 경우, 아동이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고(Davies & Cummings, 1994), 해결정도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Lee, 2004)와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후기 아동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인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로 부부 간 갈등이 발생하면 아동은 어떠한 갈등의 내용과 원인으로 다툼이 시작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Grych & Fincham, 1990; Kim, 1994), 이때 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 때문이라고 지각한 아동은 무력감, 분노, 수치심을 느끼며, 부적응 문제(Kim, 1994; Park, 1996)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와 관련된 내용은 자녀가 없는 곳에서 상의하고 자녀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시켜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는 부부갈등을 부부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부부간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부부간 갈등이 부모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녀의 정서 발달과 밀접히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높은 우울을 보인 반면,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영역을 통제할수록 아동의 우울은 높았으나,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통제의 경우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높을수

록 아동의 우울(Barber, 1996; Kim, 2008; Park, 2011), 불안(Choi, 2012; Noh, 2008), 문제행동(Barber & Shagle, 1994; Jeong, 2004)을 더 많이 보인 연구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아동은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고 애정을 철회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통제한다고 지각할 때, 자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며 의존적이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비판적이게 되어 높은 우울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Lee & Park, 2010). 즉, 학령후기 아동에게 있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용적인 분위기는 아동이 인정받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우울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연구결과들(Kim, 1995; Lee, 2010)과 일치한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의 아버지들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인 응답자는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00)를 통해 아동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짧지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때, 이를 아동이 예민하게 받아들여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후기 아동의 정서 발달에 대한 아버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를 하기

보다는 자녀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격려하고 아동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해주는 등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이 건강한 아버지-자녀 관계 형성과 아동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행동적 통제가 부모의 관심의 표현이며 규칙준수, 관리, 감독의 방식으로서 외현화 행동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Baber, Stolz, & Olsen, 2005)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 보다는 공격성과 같은 비행행동을 감소시키며(Steinberg & Fletcher, 1994),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Barber, Olsen, & Shagle, 1994). 그러나 어머니의 지도,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내면화 문제가 감소한 연구 결과(Park, 2001)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부모의 행동 통제와 아동의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 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과 관련된 것일수록 부모 모두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였고, 부부갈등이 자주 나타날수록 어머니는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였으며, 부부간의 갈등의 내용이 아동에 관한 것일수록 부모 모두 행동적 통제를 적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부부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여 자녀에게 덜 따뜻하게 대하고 비일관적인 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를 거부하거나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한 경향이 있으며(Davies & Cummings, 1994),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를 많이 한다(Gang & Jang, 1999)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자율성을 고취하기보다는 죄의식을 심어주면서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Fauber et al., 1990),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는 낮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Lee, 2004)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 갈등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 분노와 같은 부적절한 감정이 부모 자녀 관계에 종속되어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기보다 자녀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을 통제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긍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을 위해서 건강한 부부 관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 통제의 매개적 역할을 조사한 결과,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통제는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부부갈등의 내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된 것일 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통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부부갈등의 내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부부 간 갈등이 아동 자신과 관련된 내용일수록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부모의 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와 관련된 것

일수록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게 되어 아동의 우울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와 같은 양육 행동을 통해 불안,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Choi, 2012; Noh, 2008)와 부부갈등으로 무기력해지고 지친 어머니가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어 아동의 활동은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다는 연구(Belsky, 1984)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 일관성 없는 양육방식에 의해 매개 되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주며(Dadds & Powell, 1991),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정적 양육태도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Lee, 2004)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는 행동적 통제가 외현화 행동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Baber, Stolz, & Olsen, 2005)와 부부갈등이 행동적 통제보다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한다는 연구결과(Choi, 2012)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부부갈등 상황에서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행동적 통제보다 심리적으로 애정을 철회하며 통제하려는 양육 행동이 아동의 우울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와 관련된 내용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령후기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기보다는 독립성을 인정하고 수용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부부간의 갈등도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율의 증가와 같이 가족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부부간 관계의 어려움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저해하고 성장기 자녀의 발달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부부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에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의사소통 개선법 등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 교육적 차원의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의 활성화가 촉구된다. 나아가, 아동의 우울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령후기 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및 양육방법 등 아버지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근거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과대, 과소평가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고자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 평가자를 포함해서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부갈등과 부모의 통제만을 고려하였다. 즉, 아동의 우울에 대하여 가족 환경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 자아 탄력성,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을 고려하여 관계를 밝혀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통제를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나누고 각각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부부의 갈등을 강도, 빈도, 해결 그리고 내용의 다차원적 측면에서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의 환경적 요인인 부부 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을 통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발달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학령후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령 후기 아동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부갈등 예방을 위한 부부 관계 향상 교육 및 부부 갈등 관리 방법과 부모 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특히 아버지 교육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Shagle, S. (1992).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 sociological analysis. *Family Perspect, 26*, 493-515.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5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1984). *The psychology of ag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A: Brooks-Cole Publications.
- Berry, W. D., & Feldman, S.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CA: Sage Publications.
- Cho, J. Y. (2010). Pathway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rough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eoul, Korea.
- Choi, M. 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s' anxie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5), 163-180.
- Cytryn, L., & McKnew, D. H. (1972). Proposed classification of childhoo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9, 149-155.
- Dadds, M. R., & Powell, M. B. (1991). The relationships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adjustment to aggression, anxiety, and immaturity in aggressive and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53-567.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13.
- Gang, C. Y., & Jang, Y. J. (1999).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style, marital conflict, caring behavior and child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51-75.
- Garber, J., Robinson, J., & Valentiner, D. (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2-33.
- Garrison, C. Z., Addy, C. L., Kackson, K. L. (1991). The CES-D as a screen for depression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4), 636-641.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2, 437-453.
- Grych, J. H., Sie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72.
- Ha, Y. H. (2004).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42-52.
- Jeon, S. Y. (2007).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and self control on children's problems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4), 169-179.
- Jeong, A. S. (2003).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s of urban children in pove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Y. J. (2004). Moderator effects of children's sex and peer acceptance: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05-223.
- Kim, B. N., & Cho, S. C. (2008). Treatment strategies for the child and adolescent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11(3), 216-231.
- Kim, H. Y. (2007). Effect of marital conflict and parent nurs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on their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Kim, H. Y. (2008). The effects of mothers'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 on children's perfectionism and children'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Y. (2010). Maternal control an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s related to child'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A. (1994). Study on ego defense mechanism and anxiety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 and self-Percep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J. (2012, September, 28). A teenager invaded elementary school classroom with shovel. The kyoung hyang shinmun,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281647431&code=940202.
- Kim, J. R. (2004).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5), 683-690.
- Kim, K. M. (2010). Marital conflic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riendship qual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H. (1995). Children's affective appraisals and cognitive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H. (2008). The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for neglected children- focused on risk factor and protective fac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H., & Lee, J. M. (2002). The influence of parent's conflict on children's & adolescent's self-esteem and maladjustment. *The Journal of Play Therapy*, 6(1), 95-114.
- Kim, Y. S. (1995). Type of parent 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 to outside 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00).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 Kum, L. E. (2010).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marital conflict on children'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Kwon, Y. Y., & Lee, J. D. (1997).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1), 65-78
- Lee, J. M., & Lee, Y. H. (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 ari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33-58.
- Lee, J. O. (2004).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Lee, J. S.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J. (2010).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autonomy as related to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im, J. H., & Yoon, J. J. (2010). A review of interparental conflict in relation to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in Korean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7(1), 263-284.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2007 Youth Report.
- Noh, J.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G. W. (2009).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depression: Focusing in gender differ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K. (2001). Relations of the maternal monitoring and information sources of parental knowledge to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M. G. (2011).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betwee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J. (1996).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Y., & Lee, E. K.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dolescents' depressive experiences,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the importance of self-identity statu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6), 87-106.
- Reid, W. J., & Crisafulli, A. (1990).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105-117.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Snyder, D., Klein, M. A., Gdowski, C. L., Faulstich, C., & LaCombe, J. (1988). Generalized dysfunction in clinic and nonclinic families: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97-109.
- So, M. G. (2008). The Study on parenting from the perspective of juvenile, their self esteem and mis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Stolz, H. E., Barber, B. K., & Olsen, J. A. (2005).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An assessment of relative impor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4), 1076-1092.

Received May 31, 2014

Revision received July 23, 2014

Accepted August 4, 2014